새 기록의 창조자들

95 Dup
WF 22
DUPLICATE
DIVISION OF ORIENT...
3- SEP 19
Copy 1962

1962년도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는 더 높은
기록을 내주십시요

최 영근 그림

화살

1961년 12월호 (149)

7개년 계획의 첫 해 승리

안 창수 그림

—에크 굉장한 힘 장사로군!
—허허…나보다 7배나 더 세졌답니다!

지상락원

남 (하수 쪽에서) 여보 마누라—

녀 (상수 쪽에서) 여보 령감

(두 사람 다 등장해서 서로 멀리 바라보며 크게)

남 아 여보 마누라!

녀 아 여보 령감!

남 아 거기 있는 걸 그렇게 찾았구려

녀 아 거기 있는 걸 그렇게 찾았구려

남 당신은 날 왜 찾았소

녀 당신은 날 왜 찾았소

남 허허 왜 남 하는대로만 해

녀 당신은 왜 남 하는대로 하우, 나는 편지가 와서 당신을 찾았쇠다(숨을 돌리면서) 아이구 숨 차

남 난 당신이 편지 받았다는 얘길 듣고 당신을 찾았쇠다(숨을 돌리면서) 아이구 숨차, 이리 주, 어디서 온 편진지 봅시다

녀 옛소 (준다)

남 (편지 여섯장을 받아서 부채'살처럼 펴들고) 오—이거 모두 손주애들께서 왔구려

녀 아—니 그 애들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편질 보냈을가?

남 원 마누라두, 서루 약속만 하면 이렇게 되는게지 이상할 게 뭐야,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쁘게 해주려구 저희끼리 서로 짜 가지구 일부러 한날 한시에 받아 보게 한 모양이야, 하하하, 손주 자식들이 여섯이나 되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겠쇠다그려,

녀 호호호 여보 령감

남 왜 그러우?

녀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알겠소?

남 아 뜯어 봐야 알지 껍데기만 보구 어떻게 알어

녀 난 읽어 보지 않아도 다 알겠쇠다

남 뭐?

녀 아 뻔하지, 당 대회 결정을 꼭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썼겠지, 다른 거 있소?

남 그럼 편지 뜯어 보지 맙시다

녀 왜요?

남 다 아는 거 읽을 필요 있소? 어서 가서 볼 일이나 보오.

녀 앗다 령감두 똑 옛날 스무살 때 놀듯하는구려 (일부러 소리를 높여서) 귀엽쇠다

남 당신은 력기 선수 같쇠다

녀 력기 선수라니?

남 올렸다 내렸다 하니 말이야

녀 호호호 (편지를 뺏으려고 하면서) 이리 주오 내 읽을 게!

남 가만 있어! 내가 읽을테야 (한장만 들고 읽는다)《할아버지 할머님 전 상서라—》

녀 그 앤 누구요?

남 재령 농업 협동 조합에 가 있는 제일 큰 애

녀 오— 창현이가 보낸 거요 어서 읽우,

남 《기체후 일향 만강하시며 합내 제절이 두루두루 무고 하신지 복모 구구 무임하선지지로소이다…》

녀 아—니, 그런 말이 거기 써 있단 말요?

남 그런 말이 응당 써 있어야 할텐데 없단 말야!

녀 아이구 령감두 상투 냄새야

남 쉬—떠들지 말우《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이번 당 대회에서 수상님의 보고를 듣고 끓어 넘치는 흥분과 감격에 뛰놀던 가슴을 아직까지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읽는다) 오늘의 찬란한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해 주신 은혜도 하늘 같은데 또 다시 우리 앞에 펼쳐주신 7 개년 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생각하니 조선 사람으로 태여난 행복감을 더욱 금할 수 없습니다》

녀 아, 우리 당과 우리 수상님의 은혜야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지

남 아 여부가 있소, 천추 만대를 두구 대대 손손 잊지 못할 은혜지 아—니 명년도의 첫째 가는 과업이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인데 그 얘긴 한마디도 없으니 자 이 자식이 도대체 수작이 틀렸쇠다그려

녀 덤비지 말구 어서 그 다음을 읽어 보우

남 《할아버지 걱정 마십시요 명년도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해서는 첫째가 토지 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녀 (팔꿈치로 령감의 허리를 툭 건드리면서) 있지 않소.

남 글쎄 그렇다면 모르거니와… 아닌게 아니라 토지를 개량하고 확장하고 자급비료 많이 낸 다음에 종자 선택 잘 해가지고 선진 영농 방법만 옳게 쓰는 날이면 그저 그만이지

녀 어이구 누굴 닮아서 그애가 그렇게 잘났을가

남 날 닮아서 그렇지

녀 미운 건 모두 날 닮구?

남 마누랄 닮았으면 그애가 천리마 휘장 탔겠소?

남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말씀하는 데 버릇 없이 말대답 톡톡 하지 마십시요…》

—100만 톤 알곡 증산 과제의 승리적 성과를 열렬히 축하 합니다

박 승히 그림

녀 아니 그 말이 거기 써 있소?

남 그럼 써 있지 거짓말을 하겠나 그래서는 가서…《이 좋은 세상에서 아모쪼록 오래 오래 사세요》오냐 념려 말아 나두 맹중 없는 민청원이다

녀 (편지를 주면서) 이번엔 구성 방직 공장에 가 있는 창옥이 편지요 그런데 여보 령감

남 왜

녀 천리마 시대에 빨리빨리 읽으란 말요 굼벵이처럼 느리게 읽지 말구

남 머 굼벵이? 굼벵이가 뭐야 굼벵이가? 높이란 말야!

녀 뭘 높여?

남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란 말요

녀 호호… 높입시다 그럼 굼벵이처럼 읽지 말구…

남 또 그러거든《저는 직물 2억 5천 만 메터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기 위하여 200 번수까지의 고번수 방적사를 생산하여 1등품 비률을 100%로 제고시키는 혁신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밤낮 원하시면 비단 치마 저고리를 백필 천필 만필이라도 해드리겠어요…》아니 요년이 할머니 옷만 하고 할아버지 옷은 말한마디 없으니 이런 패씸한 년이… 하하 그거참

녀 아—니 시집까지 간 애를 보고 왜 이년 저년하고 욕을 하우?

남 아 그럼 손주 딸년 더러 그 량반 저 량반 그럴가?

녀 높이란 말이요

남 뭘?

녀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란 말이외다

남 하… 마누라 말이 맞았쇠다 …자!

전투 명령

홍 종호 그림

1962—공격할 때 전면적 기술 혁신, 증산 절약,
설비 리용률 제고를 명심할 것!

이건 둘째 아이 원산 수산 사업소에 가 있는 창수 편지구려(읽는다)《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으으으?》

녀 아—니 창수 편진데 증조 할아버지가뭐야 촌수도 모르나?

남 덤비지 말구 가만 있어요 《아버지가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편지를 씁니다》

녀 오우 그래… 어서 빨리 빨리 읽우

남 그래서는 가서…《아버지는 물'고기 80만 톤을 잡기 위해서 저예망, 단기망, 만가동, 전꽝 어로법으로 날마다 만선 운동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녀 아—니 저예망, 단기망, 만가동이라니 그게 모두 무슨 소리요?

남 이렇게 무식하다구야 그게 다 물'고기 잡는데 쓰는거야

녀 에이그 령감 혼자 유식하외다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어서 이 편지나(또 편지를 주면서) 또 읽우

남 자 그럼 먹고 입는 문제가 끝났으니 이젠 집 문제가 나오겠군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이건 평양 건설 트레스트에 가 있는 창남이에게서 온 편진데…《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주택 20만 세대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기 위하여 평양 속도 기준에 또 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녀 원 저런 놀라울 데가 어데 있어? 엣소이다, 또 읽으시우

남 이건 황해 제철소에 가 있는 창필이에게서 온 건데《당 대회가 끝나자 지난 9월 22일 수상님께서 우리 황해 제철소 제 2호 용광로 조업식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년도에 여섯개 고지를 점령하자면 농촌 부문, 수산 부문, 직물, 건설, 석탄 부문에 기계를 많이 만들어 보내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하는 기술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으니 명년도 계획인 강철 120만 톤 중에서 황해 제철소에서는 50만 톤의 강철 고지에 올라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동자들은 1211 고지를 점령하던 용사들과 같이 의기 충천하는 기세로 선진 용해법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강철을 더 많이 생산하구 강판, 강편, 강괴, 강관, 중형강, 소형강 등의 강재 규격을 더욱 확대시키는 운동에 총궐기했습니다.

녀 과연 천리마 기수들이군!

남 또 다음 편지 읽읍시다(받아 읽는다)이건 아오지 탄광에 가 있는 창근이께서 온거야《나는 석탄 1천 5백 만 톤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기 위하여 고속도 굴진 운동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채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아! 아! (이상하다고 고개를 외로 흔들면서) 아 아?

녀 아! 아! 가 뭐요?

남 글쎄 말이외다 아! 아! 아자가 둘이 있단 말야

녀 아 시를 편지 읽듯하면 되우, 랑송을 해야지

남 (옛날 시조 읊는 투로) 아—석탄이여…

녀 (뺏으면서) 아이구 구식이야, 현대식으

로 읽으란 말요(시 랑송 조로) 아 아 석탄이여, 뉘라서 네 이름을 검은 돌이라고 하더냐, 무진장으로 쌓인 석탄 네 몸으로부터 이제 가지가지 화학 제품들이 줄음지어 쏟아져 나오리니, 그래서 행복의 꽃이 더욱 찬란히 빛나리니 네 이름은 금은보다도 더 귀중한 은혜로운 보배이여라》

남 멋이 있소이다

녀 천만에 말씀이외다(편지를 주면서)

남 잘 논다 시 랑송을 잘해서 멋있단 줄 아우, 우리 나라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게 멋있단 말이외다

녀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런데 여보 령감 가슴이 자꾸 울렁거리는군요.

남 왜?

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생각만 해두 말이요…

남 아 여부가 있소… 1962년의 눈부신 대문을 활짝 열면 첫째 고지는 황금빛 무르익는 알곡의 고지요…

녀 둘째 고지는 오색 무지개 춤추는 비단의 고지

남 세째 고지는 배'소리 두둥둥 펄펄 뛰는 생선의 고지

녀 네째 고지는 봉황새 나래 같은 주택의 고지

남 다섯째 고지는 불꽃 쇠'물이 축포처럼 쏟아지는 강철의 고지

녀 여섯째 고지는 5색이 번쩍이는 석탄의 고지 호호 얼마나 좋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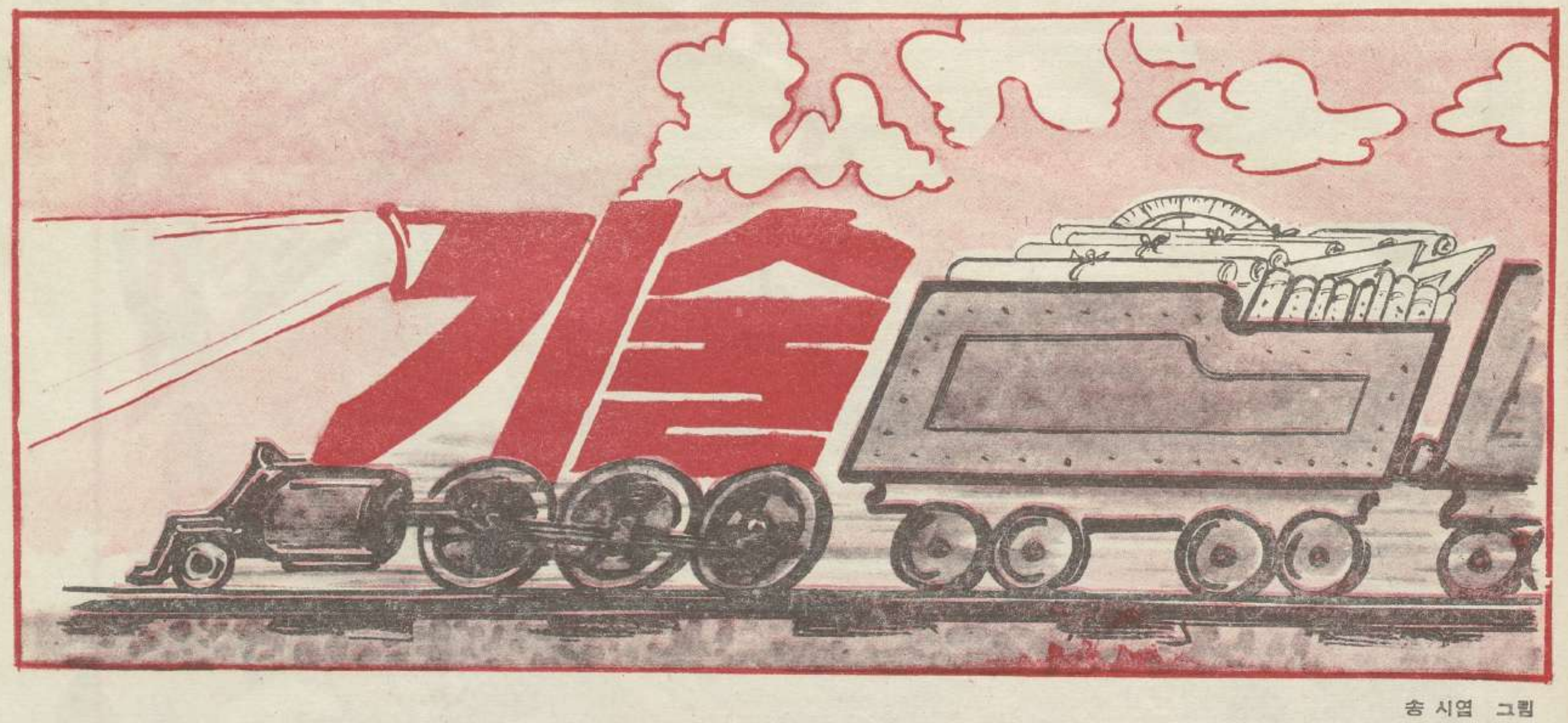
남 얼마나 좋소

글루 6년간에 60만 동의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은 우리 나라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촌 면모를 일신 시키게 될 것이다.

백 인균 그림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서는 변압기의 결선을 개조하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frac{1}{3}$로 감소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력용 전압을 220볼트로 부터 380볼트로 제고 시킴으로써 년간 20만 8000키로왓트시의 전력을 절약하였으며 열처리 전로와 세척로 등 전로를 무연탄으로 교체하여 막대한 전력을 절약하였다.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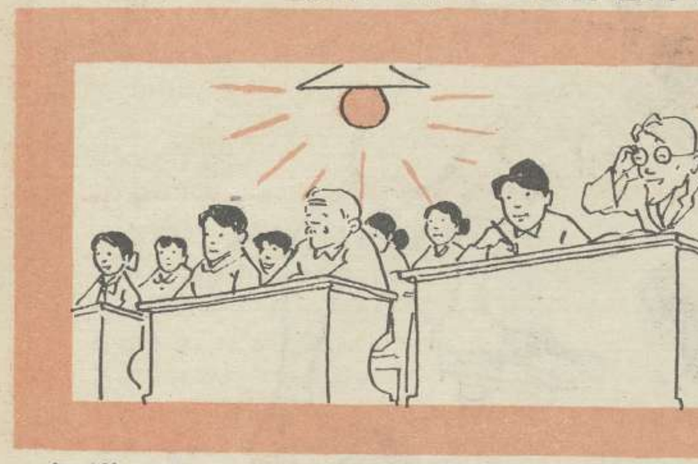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500만톤 문제 없다!

유 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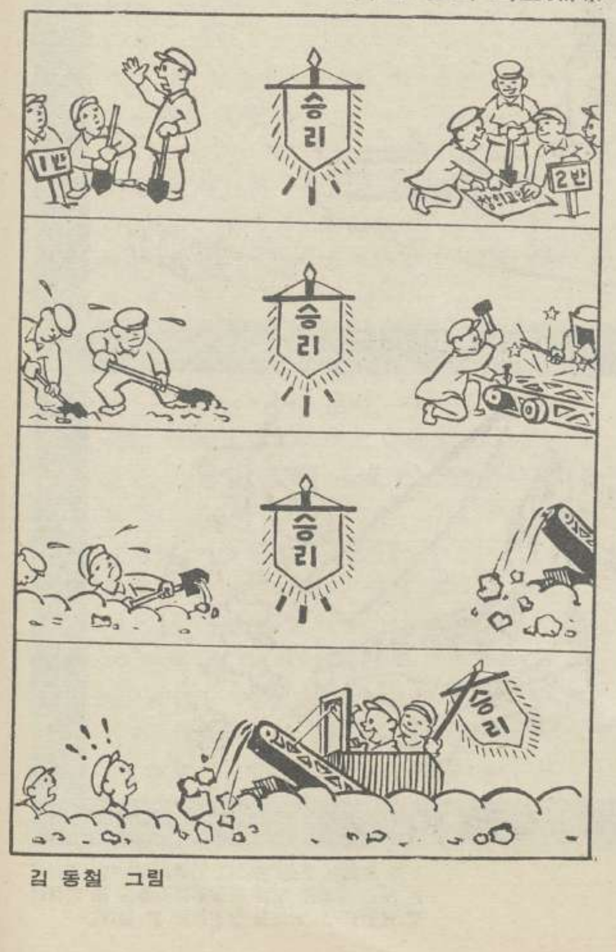
남—아 이거 친애하는 금옥 동무가 아니요
녀—아이구 참 오래간만입니다.
남—이렇게 만나구 보니 더욱 반갑군요
녀—저 역시 그래요 호호
남—난 동무가 이번 전국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춤을 췄지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녀—참 감사해요
남—더구나 동무와 같이 평양 구경까지 하게 됐으니 이만저만 기쁘질 않군요
녀—아니 그럼 동무도 이번 대회에…
남—아닌게 아니라 이런 영광은 난생 처음입지요.
녀—그러구 보니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군요. 최대의 축하를 드립니다.
남—감사합니다. 그래 동무네 조합에선 어떤 선물을 이번 대회에 드리렵니까
녀—많습지요. 그 중에서두 항복서가 으뜸이랍니다.
남—(갑자기 눈이 휘둥그래지며) 항복서요?
녀—왜 그리 놀라십니까
남—아니 아무리 이웃 사촌이기로서니 그렇게까지 겸손할 필요야 없잖습니까
녀—겸손이 다 뭐예요, 막 무자비하게 싸웠는데
남—그런데 왜 우리 조합과 경쟁을 체결하자 마자 손부터 듭니까
녀—아이구 참, 누가 그렇게 호락호락 손을 들 줄 아세요,
남—방금 동무가 항복서 이야길 하니 말입니다.
녀—그게 승리자인 우리에게 차례진 선물이지요
남—동무네요?
녀—그럼은요, 우선 우리 조합 민청원들의 총 돌격 바람에 100만 정보의 간석지가 녹아났거든요.
남—(무릎을 탁 치며) 옳지! 인제야 알겠구나. 거 정말 신통히두 같은데요.
녀—뭐가 같단 말입니까
남—우리도 그런 항복서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녀—동무네 조합에 무슨 간석지가 있다구요
남—하아, 이 동무 밤낮 외우면 북청 회의 정신은 깜빡 나들일 보낸 모양이로군
녀— 옳—아, 과수 면적 확장! 호호호
남—옳습니다. 밑에다간 옥수수, 중턱에다간 각종 과실 나무, 그 웃턱에다간 뽕나무— 이렇게 척척 계단식으로…
녀—막 올라 가겠군요
남—그럼은요. 이를테면 생산이 오르지요
녀—내려 가는 맛도 괜찮답니다.
남—(뜻밖이라는 듯 바라보다가) 아니 뭐요—?
녀—내려 가야 객토도 끄집어 내고 니탄도 캐 낼 게 아닙니까
남—하하하 그런 걸 난 또…
녀—강을 척 막아 놓고 깊숙히 내려가서 수백년 묵은 감탕 흙을 퍼 내는데…
남—거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녀—그 뿐이라구요. 게다가 퇴'장, 두엄, 또 뭐 뭐 모조리 파고, 긁어다가 자급 비료를 정당 60 톤이나 장만했는데요
남—(잠시 생각하다가) 가만 이러다간 정말 우리가 지겠는 걸, 호 참. 미안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따져 봅시다
녀—좋아요
남—자 우린 벌써 가을갈이를 끝낸지가 그 옛날이구요
녀—우리는 그 우에다 카바이트 재까지 뿌렸으니 동무네 보다 앞섰구요
남—자 그건 그렇다치고 종자에서야 동무네가 손을 들어야지요. 옥수수만 해두 우리는 2중 계통간 잡종 종자만 확보했으니까요
녀—너무 뽐내지 마세요. 우리의 벼 종자로 말하면 한 근이나 되고 대추알 같은 《룡성 1호》만 확보해 두었으니 손을 들어두 같이 들어야지요.
남—자 이런…게다가 모든 농사를 기계와 물로 짓는데두요!
녀—우리는 약으루두 짓지요.
남—약이요—? 오라 화학 비료가 빠졌구나
녀—물론 화학 비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소릴 함부로 하다간 락제요 락제— 호호호
남—아니 뭐요?… 이 동무가 아직두 학생 기분 그대로라니까(음성을 낮추어) 대관절 뭐가 락제구 급제요
녀—살초제나 살충제 같은 농약을 모르고 있으니 말이외다.
남—아, 그야 물론 동무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게다가 우리는 청산리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을 하구 달라 붙었거든요
녀—그러구 보니 있긴 있군요
남—있다니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녀—동무도 대회에 참가할만한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남—있기만 하겠소, 500만 톤 문제 없다구 자신 있게 토론하구 호소할 판인데
녀—동무는 산간 마을을 대표하구요
남— 동무는 벌방 지대를 대표해서
남, 녀—모두다 500만 톤 고지 점령에로!

년령과 직무는 달라도 동기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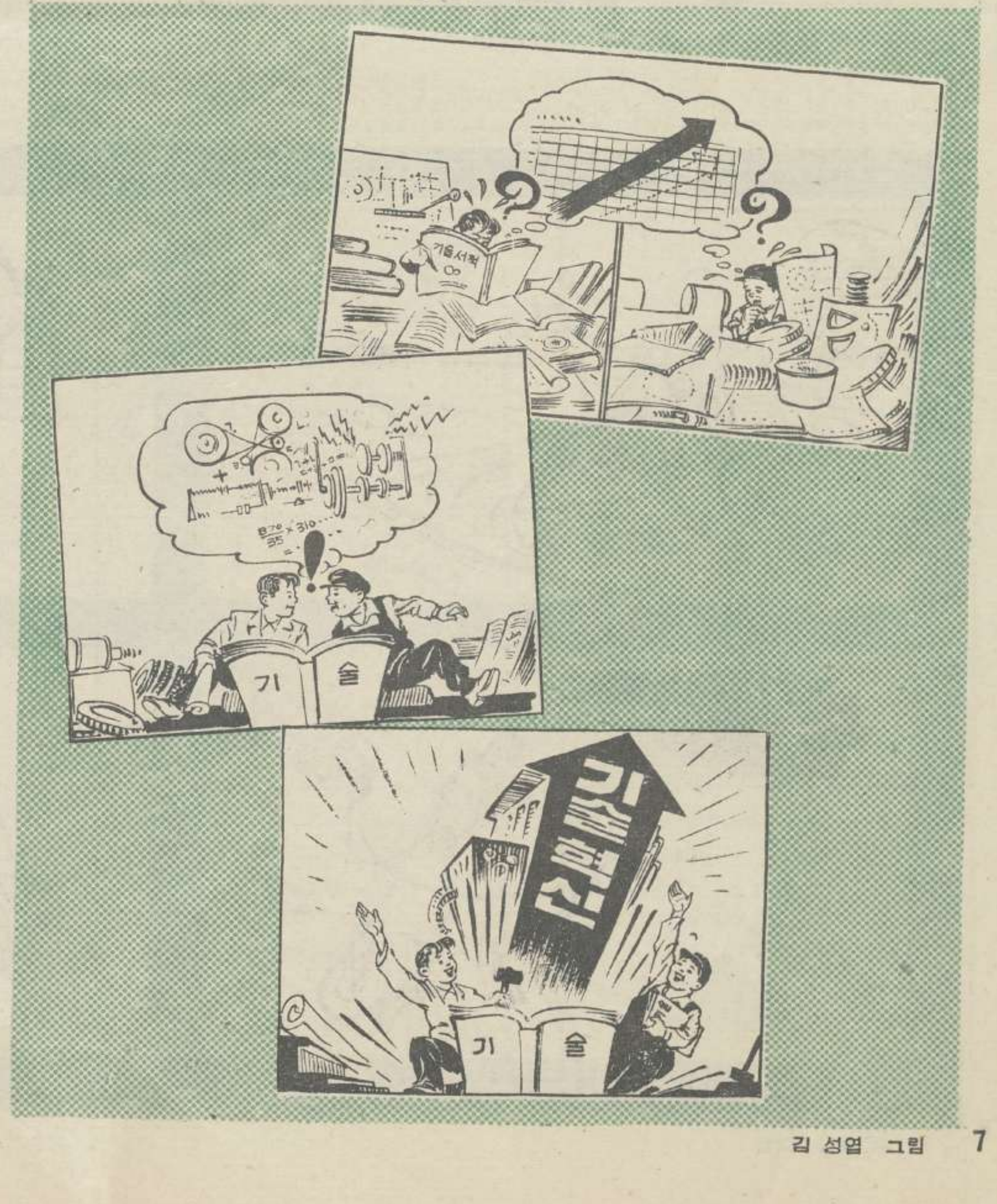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경 쟁
(수로 굴착 작업에서)



김 동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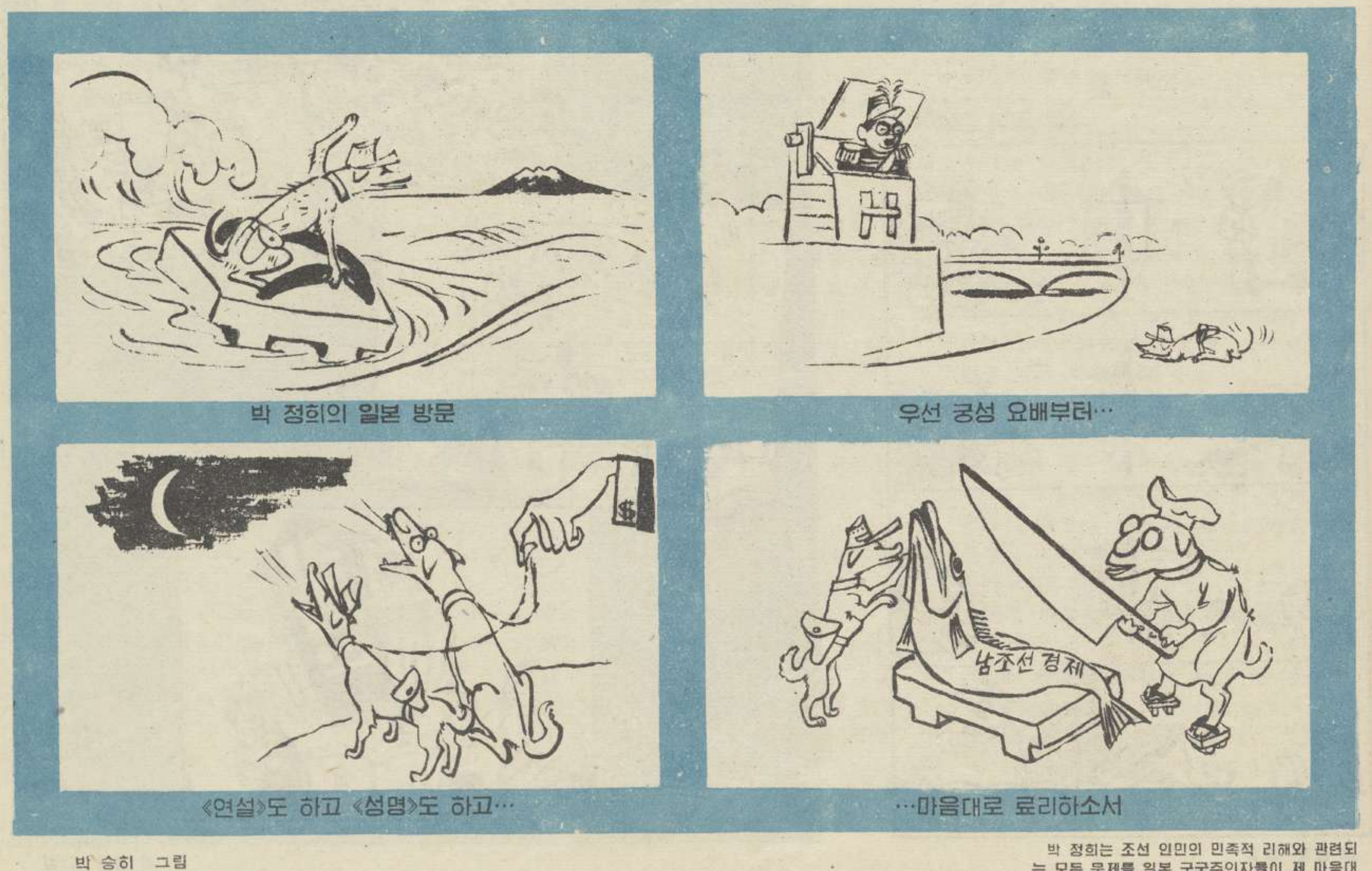
합심의 결과



김 성엽 그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 도당의 남조선 침투를 보장하면서 침략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박 정희의 일본 방문

우선 궁성 요배부터…

《연설》도 하고 《성명》도 하고…

…마음대로 료리하소서

박 정희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해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제 마음대로 료리할 수 있겠금 상전에게 떠 맡겼다.

《 재건 국민운동 》

신 홍순

시장 아저씨를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 군사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재건 국민 운동》에 대해서 항간에서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저 그럽니다.

로인 잘 알고 있을텐데 그래?

시장 네 신소장이나 여론 조사를 통해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저씨가 아시는 그대로 한번 툭 털어 놓고. 말씀해 보세요.

로인 글쎄

시장 글쎄라니요?

로인 거 뭐…(주저하며 눈치를 살핀다)

시장 아하 곧이 곧대로 얘기하셨다가 잘못되실가봐 그러십니까? 원 아저씨두. 아저씨로 말하면 저하구야 멀긴 하지만 친척간이 아닙니까? 그리구 누가 있습니까? 단 둘이 얘긴데요.

로인 지금 어디 친척을 알아 보던가? 휘두르는 칼에 걸리면 베였지 뭐 별 거 있나?

시장 아저씨 난 아저씨가 아무런 말씀을 하신대도 그저 듣고만 있을테니 듣고 본대로 얘기해 주십쇼. 그래야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 채리고 정사를 할게 아닙니까?

로인 그렇다면 얘기하지 〈재건 국민 운동을 하는 건 모두들〈환영〉이네

시장 환영이요? 허… 물론 그럴겁니다 허…

로인 쌍수를 들어〈환영〉들이야

시장 허… 그래 어느 점에서 좋다구 환영을 하던가요

로인 음 그게 왜놈들이 망할 때 쓰던 식 고대로라고 하면서…

시장 네?

로인 의복은 똑같이 신 생활복을 입어야 헌다, 밥은 잡곡을 먹어라, 학생들의 머리는 빡빡 깎구,가슴에다간 명패를 달구 댕겨라…

시장 아니 아저씨!

로인 그리구 제사집이나 혼인집에는 여럿이 모여 있으면 재미 없다, 심지어 서로 만나 인사를 하는 데도 〈재건 합시다〉 소릴 먼저 해야 헌다,입 가진 벙어리요 눈 뜬 장님이 되라…

시장 그러니 어떻단 말입니까?

로인 왜놈들이 망하 듯 쉬 망할 징조니 그래서 좋다구들 그러데

시장 뭐예요? 아니 어떤 놈들이 그따우 소릴 떠벌립데까? 네? 어떤 놈들이에요?

로인 아니 왜 이리 역정을 내나?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더니… 그럼 그만 두겠네

시장 그럼 아저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인 나? 나도 물론〈환영〉이지

시장 뭐예요? 아저씨두 그런 놈들과 같이 환영이란 말이예요?

로인 아니 그럼 반댈세 〈재건 운동〉 반대야

시장 뭐라구요? 〈재건 운동〉 반대요?

로인 자 이건 환영도 안 된다 반대도 안 된다 그럼 어떡허란 말인가!

시장 아저씨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군사 정권이 아니면 거리의 그 숫한 부랑배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총칼이기에…

로인 참 아닌게 아니라 여름엔 더위를 모르고 지내게 되는 세상이라구들 그러데

시장 네에 살기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필 여름에만…

로인 그럴 내력이 지금 걸핏하면 체포요, 구금이요. 군사 재판에 사형이요, 파리 목숨만도 못하니 무섭고 소름이 끼쳐 더위를 모른단 말일세

시장 뭐요?

로인 그리구 겨울에는 인세 뜨뜻이 지내게 될 거라구—

시장 아 그럼이요, 시탄이 좀 부족은 하지만…

로인 그런게 아니구 절량 농민들이 낟알 구경을 통 못 허구 풀만 먹게 되니 인제 몸둥이에서 털이 날 지경이라나

시장 뭐에요? 어떤 놈이 그런 소릴 합데까? 네?

로인 그리구 한국엔 금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구…

시장 금? 아니 금이 많으면야 더 잘 살테지 못 살겠다는 건 뭐야?

로인 금이라니까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린 줄 아나?

시장 그럼?

로인 세금 말일세 세금

시장 아 그야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건 리승만이 때부터 다 털어 먹었구 우린 속이 텅 빈 자리에 들어 앉지 않았소?

로인 그러니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메꿔야 한단 그 말이지?

시장 그래서 〈재건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까?

로인 자네 말이 맞았네 그래서 항간에서들은 그 〈재건 국민 운동〉을…

시장 그래 뭐라구들 해요?

로인 〈재건〉이란 재물 재'자에 마를 건'자 재정이 말랐다는 재건(財乾)이구—

시장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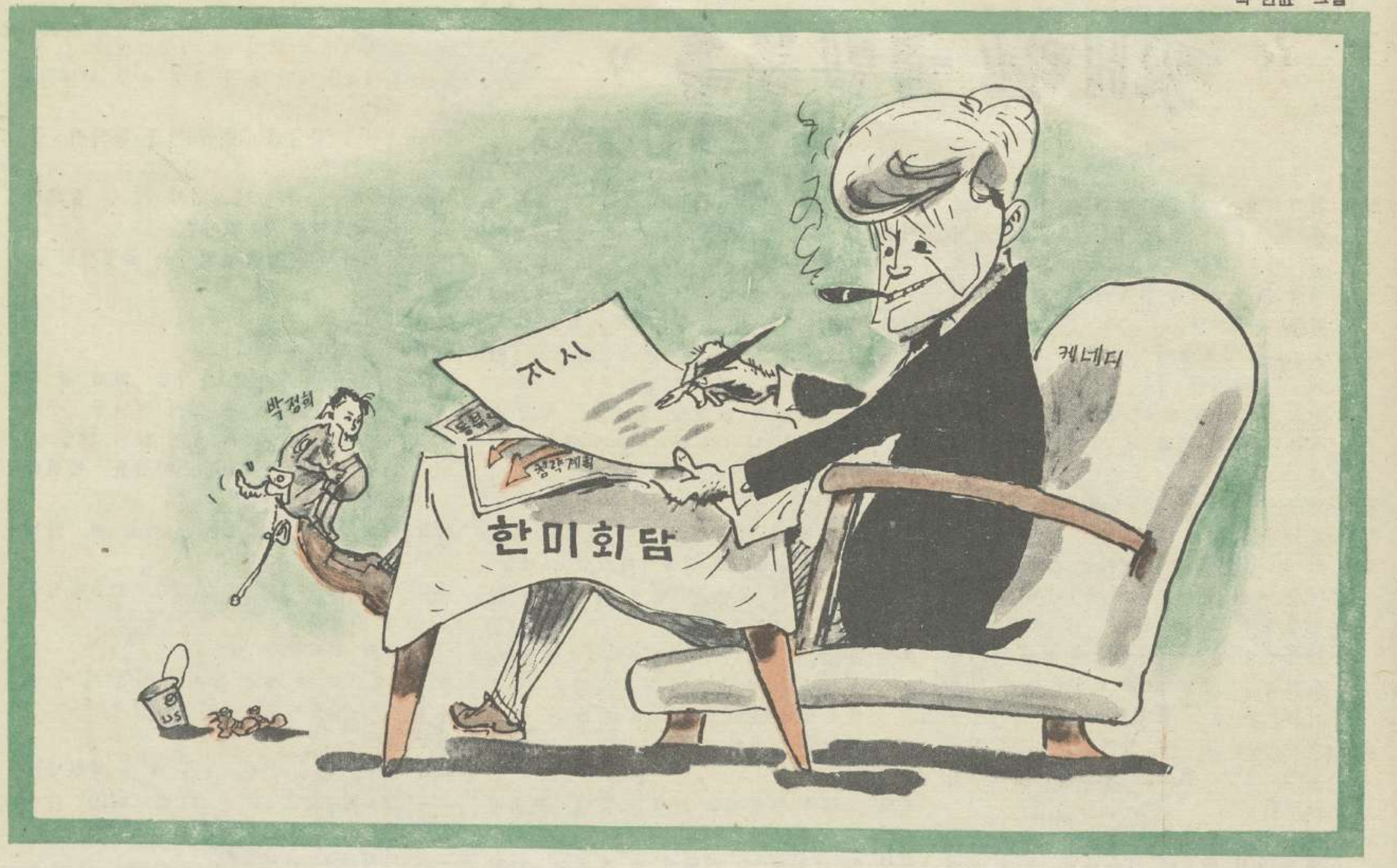
로인 〈국민 운동〉이란 나라 국'자 국민인게 아니라 궁할 궁'자 〈궁민〉(窮民) 다시 말하면 가난뱅이를 만드는 〈궁민 운동〉이라구 그러더군

시장 뭐요? 가난뱅이를 만드는 〈궁민 운동〉이요?

망할 세상(9) (공상과 현실)

거두 회담

백 인균 그림



공로의 대'가

료리집 뒤'문에서

방송실에서

위신톤 진료소에서

《정치는 모르》는 것이 《집정》 6개월 동안에 상전의 명령을 집행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치고 허약해진 박 정희에게 식보를 하여 주며 사기를 바로 잡아 주기에 급급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황급히 바다를 건너 찾아 갔던 자기 주구 박 정희를 사냥개 목덜미 쓸어 주듯 어루만지기도 하고 추어 주기도 하면서 그에게 무슨 《성명》도 외우게 하고 《연설》도 하게 하는 한편 이른바 《콤뮤니케》라는 것까지 조작해 내는 등 온갖 흉책을 다하였다.

빵꾸대장

신 불출

군복 입은 요 재수 없는 쥐새끼 박 정희가 여섯달 동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 가다가는 나중에는 일본 이께다가 신다 내 버린 헌 게다짝을 얻어 신고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쓰구 있는 실크햇 꼭대기까지 올라 갈런지도 몰라!

그러나 소장, 중장, 대장 하는 장'자 붙은 이름으로만 변하는 아이니까, 다음 장은 갈 데 없는 총장이지 다른 장이 될게 뭐요.

도대체 대장이란 뭐야? 전쟁판도 아닌데— 재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놈이 대장이란 뭐냐 말야? 어깨에다 별조각만 줘다 붙이면 재건이 되나? 무슨 대장이야 대장이? 순대를 만드는게 대장이냐, 불고기'집 적시우에서 이글이글하는 내장 비슷한 대장이냐?

원래 이 아이가 옛날부터 장'자 붙은 이름으로만 놀아 먹던 아이란 말야.

어려서부터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해먹던 다 썩은 오장이요, 시커먼 배'장이라— 도적질 하는 데는 환장이요, 총갈로 무장하고 애국자로 가장이요, 매국 매족하는 데 이끌이 나서 미국놈만 충장(充腸)을 시켜 주는 게 아니라 왜놈의 침략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주장까지 하고 나서니 한미, 한일 합동으로 량수겸장이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체포장, 구금장, 류치장이요, 기소장, 판결장으로 사형 집행장이요. 공무원은 해고장이요, 청장년은 징집장이요, 감옥 경찰만 확장이요— 군사 깡패 헌병장이요— 남조선 천지를 도살장으로, 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장이니, 장도 이만이면 천하 제일의 장이라— 박 정희를 대장이라고 부르는 데 의견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야?

그런데 이 대장 박 정희를 그냥 대장이라고만 부르면 싱거우니 아주 멋이 있게 《빵꾸 대장》이라고 하는게 어떻겠소? 여러분!

빵꾸라는 것은— 터져버린 것, 구멍이 뚫어진 것, 큰소리 치구 허장 성세를 부리다가 결단이 난 것— 색다른 놈인 체하고 세상 사람들을 깜쪽 같이 속여 먹으려다가 창이 들어 나서 도루 그놈이 그놈으로 나가떨어진 것, 끝장이 난 것, 볼 장 다 본 것—

이게 바루 빵군데— 이렇게 빵꾸가 나버린게 바루 박 정희의 군사 깡패 놀음이니 박 정희를 빵꾸 대장이라고 부르는게 어떻냐 말야? 그것도 의견이 없으시겠지?

소위 《군사 정권》을 틀어 잡고 6 개월 간이나 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업적을 총화해 볼 것 같으면 아닌게 아니라 빵꾸 대장이 될 수 밖에 없는 래력과 증거가 아주 충분하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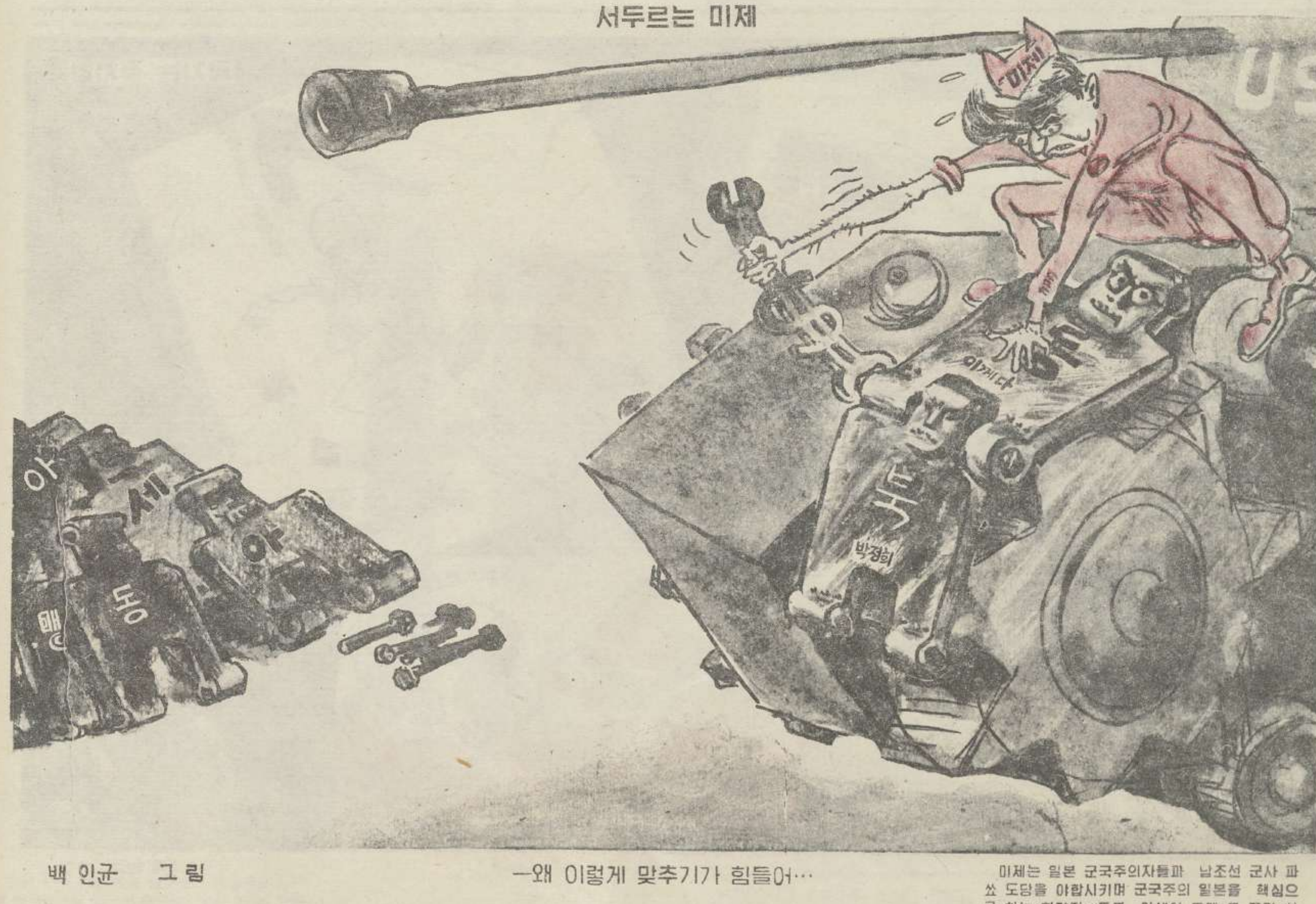
우선 첫째로— 이른바 《국가 재건 운동》이라는 놀음 노리만 하더라도 《내핍 생활》이니 《국민 도의》니 하는 따위 장난은 말하기 조차 얼굴이 간지러워 그만 두거니와—

우선 이 아이들이 철갑모를 껏덕거리면서, 그 무슨 큰 수가 생긴 것처럼 《건설이요!》《생산이요!》 하고 떠들어 대드니 결국 건설해 논거라고 수원에다가 지여 논 소위 모범 감옥 하나 밖에 없고 생산해 논 거라고는 6백 만이 넘는 실업자에다가 50만 명을 더 첨가해 논 것 밖에 없지 않느냐 말야— 연즉 그것도 빵꾸요!

그 다음에 또 《부정 부패 일소》를 떠들면서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숙청을 해야 한다고 당장 때려 죽일 것처럼 호통을 치고 잡아 가두더니—뒤'구멍 속에서 무슨 꿍꿍이

놀음으로 짝짜꿍을 했는지 부정 축재자들을 도루 다 꺼내 가지고 《경제인 협회》요 《5개년 계획》이요 하면서— 미국과 서부 독일

서두르는 미제



백 인균 그림

—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을 야합시키며 군국주의 일본을 핵심으로 하는 침략적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 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까지 보내고 있으니 이게 어디 부정 축재자에 대한 숙청이냐 말야? 한번 더 먹으라는 재청이지!

외래 상품 단속한다구 뒤'구멍으로 다 빼서 먹은 놈들이니 더 말할게 뭐냐 말야?— 연즉 이것도 빵꾸!

그리구 또《공창, 사창》없애 버린다구 《폐쇠령》까지 내려 놓구 나서 《사바사바》가 아니라 《오바오바》를 하는 바람에 실제에 있어서는 리 승만이 때 보다도 창녀들이 더 많아졌으니 도루 래미 타불이요 관세음 보살이 아니냐 말야!

부패한 현상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근원을 뜯어 고쳐야지, 《허가》니 《불허가》니 하는 문서장만 바꿔 놓으면 되나?

깡패 없앤다는 것도 그렇지— 그게 어디 없어지느냐 말야? 더더군다나 이 깡패 놀음이라는 것이 《명동 깡패》, 《종로 깡패》 다 없애고 박 정희 자신이 판을 치고 돌아가는 《군사 깡패》판이 됐은즉은 깡패를 없앤다는 것도 실제에 있어서는 깡패 끼리끼리의 약육 강식이요, 신진 대사요, 순환 소수요, 맨주먹 깡패가 무장 깡패로 《향상 발전》이 된 게 아니냐 말야? 게다가 박 정희 너는 깡패 대장까지 됐은즉 지금 남조선은 바야흐로 깡패 번성기에 들어선 감이 없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국가 재건》이 아니라 《깡패 재건》이요 《국토 개발》이 아니라 《깡패 개발》이라 이것도 빵꾸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물'가는 내리고 생활비를 올리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정 반대로 생활비를 내리구 물'가만 자꾸 올리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물'가를 인공 위성인줄로 아는 모양인지 왜 자꾸 올리느냐 말야?

연즉 이것도 빵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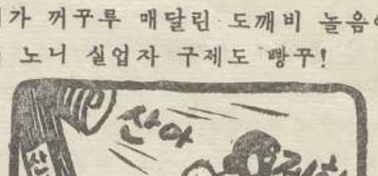
그리구 또 실업자 구제 한다고 떠들면서 공무원들의 목을 한꺼번에 수만 명씩 뎅겅뎅겅 잘라내고 있으니 실업자 구제가 아니라 실업자 탐제를 하고 있는 판인데— 이 아이들이 떠드는 실업자 구제 대책을 들어볼 것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 못한

고등 실업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등 실업자라는 이름부터 생겨 나지 않도록 대학을 미리 없애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소위 《대학 정비령》을 내놓고 있으니 이건 마치 뭐와 같은구 하니, 세상에 물이라는게 없어져야 목마른 사람이 안생길 거라는 론법이란 말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실업자도 없어질 거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산아 제한》이니 《가족 계획》이니 하고 떠드는 거거든!

그러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는 놀음이요? 도깨비 중에서도 웬 못된, 모가지가 꺼꾸루 매달린 도깨비 놀음이지—

이래 노니 실업자 구제도 빵꾸!



그러구 또 이 아이들이 《국토 개발》이라는 걸 떠드는 데— 난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우선 말부터 모르겠습니다! 《국토 개발》이라니 왜 하필 국토에다 개발을 붙이느냐 말야?

남조선도 조선 사람의 국토니 조선 사람의 발로 걸어야지, 왜놈의 게다짝 신은 쪽바리와 양키놈의 병정 구두 신은 개 같은 발로 신성한 국토를 짓밟게 하니— 오오 그래서 국토에다 개발이란 말을 붙였나?

그러니 이것도 국토를 말아 먹는 《매국 개발》이라 역시 빵꾸요!

그리구 또 《토지 개발》을 한다고 떠들길래 난 또 농토를 확장하는 줄만 알았더니 이 아이들이 농민들을 모두 보국대로 끌어 내다가 군용 도로만 개간하고 있단 말야—

그러니 군용 도로에서 쌀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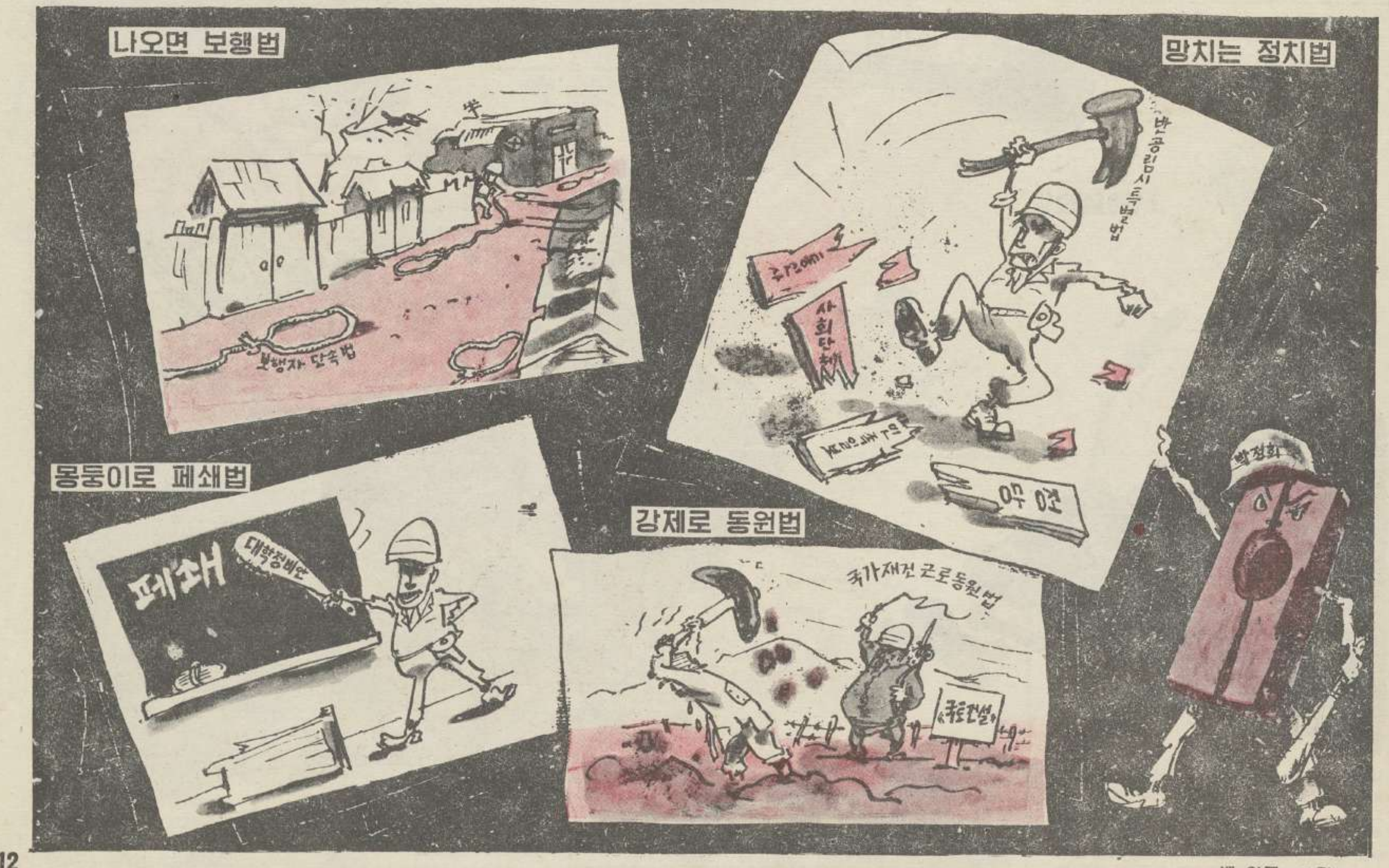
나올 거라군 총알 밖에 없으니 쌀 대신 총알이나 먹어라! 그 말이지—

이것도 빵꾸!

그런데 빵꾸 난 얘길 죄다 하자면 아마 명년 이맘 때까지 계속 해도 끝이 없을게다! 우선 대강 이만 하거니와 어쨌던 빵꾸도 이쯤 됐으면 천하 제 1 등급의 빵꾸가 아니겠느냐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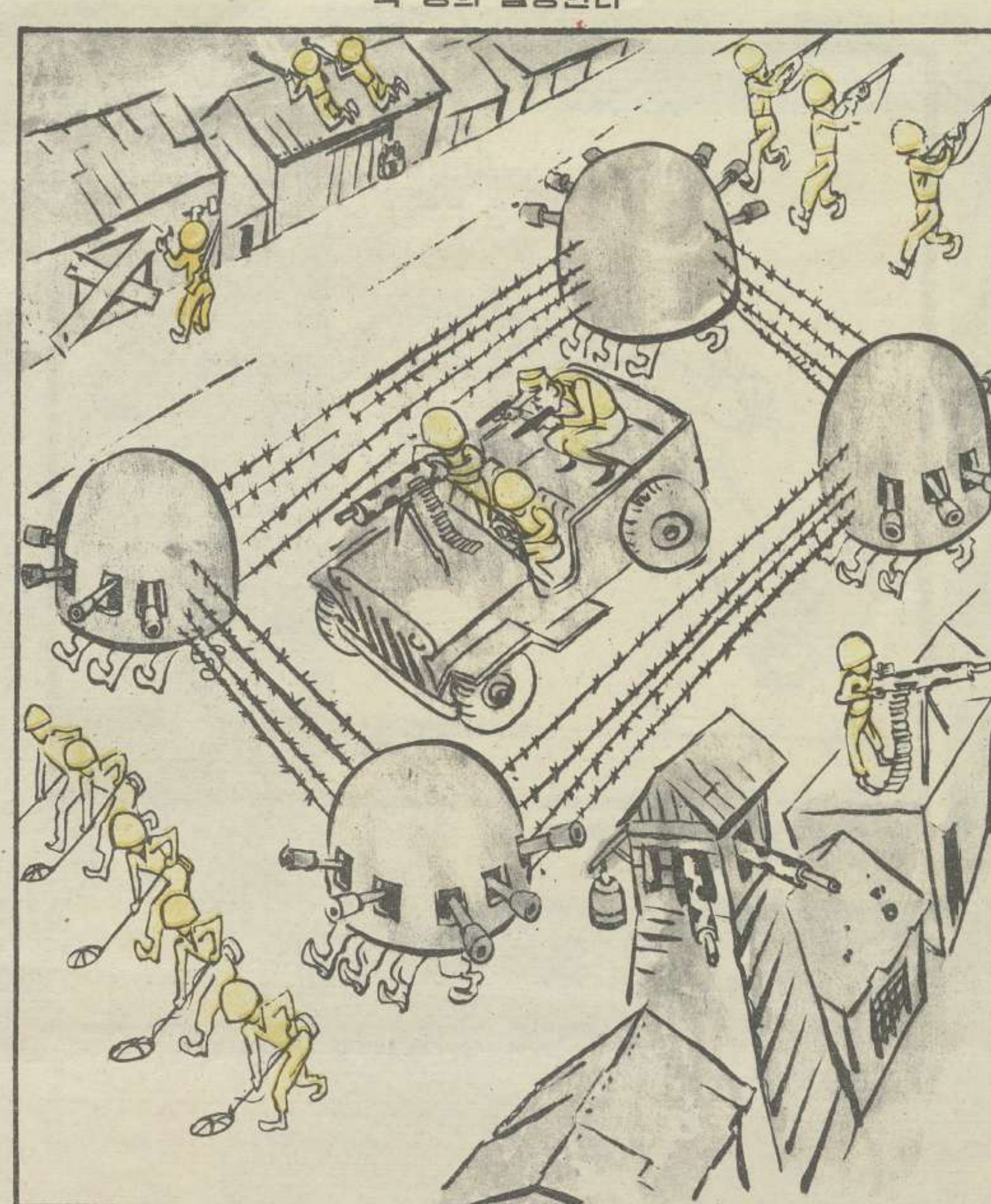
그러니 세계 력사에서 류례가 없는 장기간의 계엄령을 6 개월 동안이나 펼쳐 놓구 나서 그저 닥치는 대로 총구멍을 드려대고 《내말 안 들으면 쏜다》는 식으로 10 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면서 제 멋대로 할 것 못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건이 되기는 커녕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나가는 바람에 요지경으로 빵꾸만 나고 말았은 즉은— 어느 모로 보거나 철두철미 군벌주의자요 미국과 일본의 깡패 앞잡이로 유명해진 박 정희에

게 《빵꾸 대장》이라는 칭호를 주기로니 아까울게 있느냐 말야? 그러니 아주 오늘날'자루 박 정희에게 《빵꾸 대장》이라는 칭호를 달아 줍시다!



백 인균 그림

박 정희 출동한다



박 승히 그림

막을 길 없다

조 명식 그림

최근 4~5 개월 간에 남조선의 통화량은 2245 억 환으로부터 2830억 환으로 무려 595억 환이나 팽창하였다. 군사 룡치배들은 <통화 안정 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민간 보유 화폐>를 수탈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 군사 파쑈 악당들은 인민 수탈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출동하는 략탈 부대

—년말이다 하나도 남김 없이 거둬 드렸!

김 성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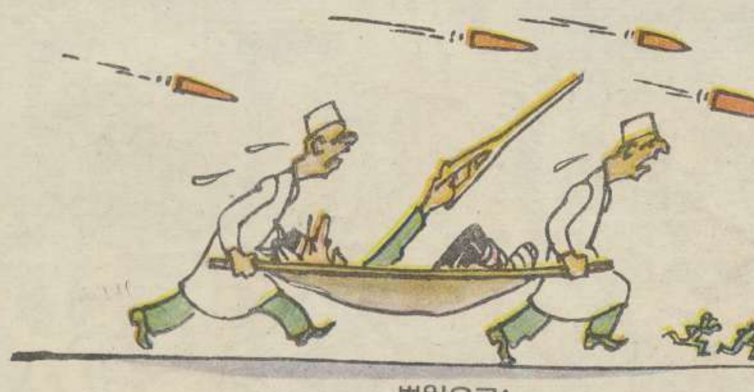
겉과 속이 다르다

일본 독점 자본은 《경제 원조》의 미명하에 남 조선 재침을 획책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드골의 구령!

—알제리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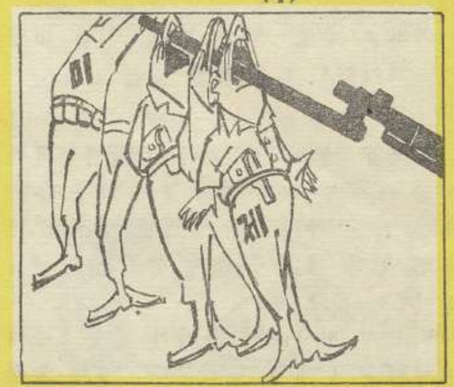


—병원으로!

최 영근 그림

리베링에서는 미제침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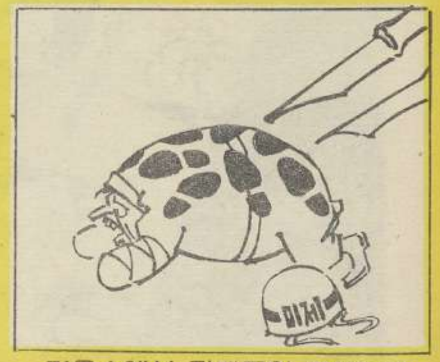
(4)



조선 전쟁에서 건명태가 되고

큐바에서 고슴도치 되고

쏘련에서 곤충 표본이 되고



라오스에서 자래목이 되였는데

—오늘은 사면 초가의 신세가 되였다

안 창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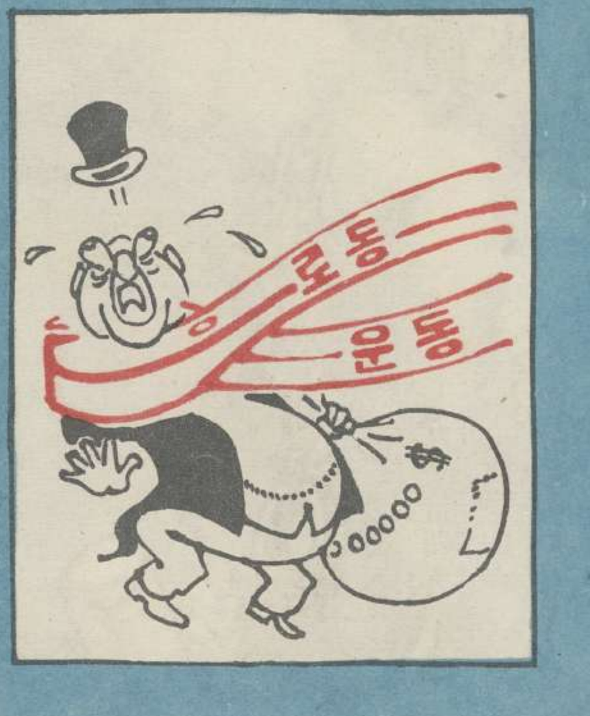
특수성 오한증

—으흐흐…
내 병은 저 해'빛을
보면 더 떨린다니까?

척추 두절증

전신 타박상

호흡 곤란증



정신 광란증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ㄱ—26146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1. 12. 20

(값 40 전)

Berl. W. 8

쓸어 버려야 한다!

95
Dup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53 5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김 성엽 그림